

【서평】

『악녀의 재구성』, 여성이라는 기호의 의미작용

- 홍나래·정경민·박성지, 『악녀의 재구성』(들녘, 2017)

김보현*

모든 기호의 의미작용은 시공간의 흐름과 발을 맞춘다. 기호가 생산되는 과정, 해석되는 과정에 생산의 주체, 해석의 주체들은 자신의 환경에 속한 다양한 요인들에 이리저리 영향을 받으며 기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기호도 마찬가지다. [여성]이라는 기표로 연상되는 의미적 덩어리들은 시간과 공간을 따라 그 모양을 변형시킨다.¹⁾ 변형된 의미적 덩어리들을 규정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생물학적인 여성에 내재된 것들이라면, 이러한 아마도 『악녀의 재구성』과 같은 기호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 “선택은 여인인 내가 아니라 그가 하는 것, 평가는 개인이 아니라 가문이 하는 것”(245쪽)²⁾처럼, 여성이라는 기호의 의미도 여성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 서강대학교 시간강사

- 1) 강명관의 『열녀의 탄생』(돌베개, 2009)에서는 한국인이 조선 사회의 친족제도에 대해 갖는 상식, 단계적 부계친족제는 16세기 이전 사회의 양측적, 공계적 성격을 배제한 결과라는 것, 17세기를 통과하면서 그 배제의 결과가 종법제에 입각한 유교적 가부장제의 완벽한 정립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여러 방식·방면으로 조락시켰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일상적 행위와 의식, 여성성을 규정하고 통제하고자 했음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 2) 『악녀의 재구성』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쪽번호로 표시하였다.

남성인 그들이 하는 것, 평가의 기준 또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한다. 따라서 여성은 타자에 의해 구성된다. 나아가 악녀도 그렇게 타자에 의해 구성된다. 『악녀의 재구성』은 사회가 만든 모범의 틀에 의해 이분화되는 여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피도록 만든다. ‘현모양처’의 자질을 가진 여성 대 ‘현모양처’의 자질을 갖지 못한 여성, ‘현모양처’가 될 자격이 있는 여성 대 그렇지 못한 여성을 다루면서 ‘현모양처’ 대 ‘악녀’로 의미화되는 여성에 대해, 새로운 의미작용을 시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악녀의 재구성』은 여성을 재의미화하는 기호작용의 실천적 결과물이라 하겠다.

책의 1장, 2장, 3장은 규정된 차이를 통해 구성된 여성들을 전체로 한다. 1장 『모성으로부터의 탈주』와 2장 『열로부터의 탈주』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 의해 구성된 여성의 의미를 살피고, 그 올라가미에서 탈주하는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성과 남성 중심적 사회가 구성한 ‘어미인 여성’과 ‘아내인 여성’에서 벗어난 여성, 말하자면 ‘현모양처’이라는 기표에 내재된 [+모성]과 [+열]의 자질을 거부하는 여성을 보여준다. 3장 『양처의 재구성』은 1과 2장과는 반대로 [+모성]과 [+열]의 자질을 지닌 여성들을 다루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1장 『모성으로부터의 탈주』에서는 양사연의 어머니, 손병사의 어머니, 광주 안씨, 곶 여인을 기술한다. 제목 그대로라면 우리는 이 여인들을 [-모성]이라는 자질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성]으로 묶기에는 이들은 참으로 이질적이다. 양사연의 어머니는 모성의 표본으로 해석되는 여성이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고자 죽음도 불사한다. 이 어머니에게서 [+모성]의 자질을 삭제하는 것은 어색한 의미화 과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들은 양사연의 어머니를 귀신에게 이기기 위해 자식 둘을 생으로 죽이는 손병사의 어머니 광주 안씨나 인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자식을 찢어 죽이는 곶여인과 나란히 ‘육망을 가진 인간’으로 재해석한다.

2장에서는 기록하기도 난감한 이순지의 딸 이씨와 음양인(陰陽人) 사방지의 간통사건, 성몽정의 모친과 성세창 여종의 귀태 사건, 미인 김정 필의 지아비 독살사건을 다룬다. 이 여성들은 ‘열불열녀’, ‘이부열녀’와 같

이 열녀이면서 열녀가 아닌, 열을 강요받음으로써 모순적 열에 함몰된 여성과는 다르다. 이 장을 읽다보면 여성들이 당대의 ‘열’을 거부하고 탈출하는 방식뿐 아니라 이 일탈에 대한 사회의 대응 방식에 주목하게 된다. 여자 옷을 입고 여성들 속에서 여성들과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사방지에 대해 병자,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 인류가 아닌, 양성인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인류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비롯하여, 아이 없이 태어난 아이를 도깨비나 귀신에 의해 잉태된 존재로 변형하는 방식, 남편을 독으로 살해한 춘부를 절세미인으로, 가부장 시역 범주를 일상성으로 변형하는 사회적 태도에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3장의 제목 『양처의 재구성』은 3장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제가 1과 2장과 동궐에 놓여있을 것으로 예상하게 만든다. 어미와 아내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여성이 ‘양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이 장이 ‘어미와 아내’의 지위를 버리는 여성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그런데 이 장은 그러한 기대를 넘어선다. 이 장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양처라는 기호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처가 되고자 사회적 관계를 재배치한다. 한명희의 후처였으나, 정치의 지위를 차지한 어떤 여성은 정치가 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법도와 왕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기축의 처 우씨 또한 뛰어난 정치적인 안목을 토대로 반정과 전쟁이라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남았으며, 서열이라는 신분 때문에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한 남편에 대한 재평가를 이끌어낸다. 93세로 졸하기까지 우씨의 신분 역전 의지와 노력은 오래도록 살아남아 기축의 공직과 행적을 긍정하게 하고 자손을 번창하게 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바꾸어놓은 것이다.

1장부터 3장에서 고전 서사 속 여성들을 바라보는 방식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1장은 이름 없이 ‘누구의 어머니’로 기술되는 여성들에게서 [+모성]을 제거하고, [+육망]이라는 자질을 가시화한다. 2장은 여성에게만 한정된 [열]이라는 속성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오히려 여성들에게 열이라는 허명을 씌우고 물리적·사회적 죽음을 정당화하는 주모자들을 살피게

한다. 그 주모자들이 [-열]의 속성을 취급하는 방식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3장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양치가 되는 여성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변형함으로써 양치의 지위를 만들어가는 여성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시선은 이 여성들이 기록된 텍스트를 다루는 방식에서 가속화된다.

『악녀의 재구성』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역사적이면서 허구적이다. 양사언의 어머니가 없이는 양사언이 태어날 리 만무하고, 이순지에게는 딸도 있었고 사방지라는 노비도 존재했으니, 사방지의 연인 이씨도, 왕가의 서자 이기축이 우종남의 딸과 혼인했으니 야담집의 우씨가 실존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들은 설화나 노래 속 인물인 내 복에 사는 막내딸, 제주도 조상신 광청아기, 화전가의 텐동어미보다도 비현실적이다. 그들은 항상 누구의 어머니거나 누구의 아내여서 그 이름마저 삭제된 상태이다. 이름도 있으면서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시공간에 머물렀던 본부독살미인 김정필도 매체를 통해 허구화되어, 신문 속 “망년 스물이라는 시노스기튼 미인(95쪽)” 김정필이 “함경북도 명천군 하가면에 사는 스무살(93쪽)” 김정필과 동일인인지 아닌지 명확히 분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역사적 인물들이 허구적 인물보다 더 허구적이고, 허구적 인물이 역사적 인물보다 더 사실적인 이유는 이 여성들을 기술하는 텍스트의 태도와 관련된다.

각 장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여성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존의 유무에 따라 유형화되기도, 역사서에 실린, 설화로 전해지는 등의 기술 텍스트에 따라 유형화되지도 않는다. 양사언의 출생이나 입신 관련 설화에 등장하면서 예언가 뺨치는 지락을 지닌 양사언의 어머니, 아들을 잡아가겠다는 귀신의 엄포에 “그러라(38쪽)” 의연히 말하여 굴하지 않는 손 병사(兵使) 어머니, 인간을 남성을 사랑해서 인간 남성을 납치하고 보살핀 압꿈, 꿈속에서 교합하고 성몽정을 잉태한 그 모친, 『방한립전』의 영혜빙, 이 인물의 행적들은 서로의 정체성을 변별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귀신과 대결하고, 꿈속의 교합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사건을 누가 실제적 사건으로 인식하겠는가. 『악녀의 재구성』은 실존 인물이건 설화 속

인물이건, 소설 속 인물이건, 이들을 ‘고전 서사 속 여성들’이라는 동일한 위계로 위치시킴으로써, 여성이라는 기호 안으로 이들 모두를 포섭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책속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가두는 기호에서 신화적이고 초월적 방식으로 탈출한다. 4장과 5장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차이에 구속된 자신들을 제목에서 명명하는 것처럼 신성한 이야기 이고 초월적으로 스스로를 주체화하는 것이다. 4장 『그녀, 주체로 서다』의 주체적 여성, 고구려의 우 태후, 조선의 수급비, 구한말의 텐동어미, 그리고 내복에 사는 막내딸, 이 네 여성들이 속한 사회, 신분 계층, 정체성 등은 제각각이지만 그들이 스스로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자기 우주의 중심으로 여겼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고구려의 우 태후가 왕후 및 태후로써 가부장적 권력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우주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대적으로나 계급상으로나 충분히 가능한 일로 용인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 가장 하층 계급에 속한 수급비, 네 번의 결혼에 네 번의 상부(喪夫)를 경험한 텐동어미, 집에서 쫓겨난 어린 처녀가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

물 깬는 관비는 관청이나 주인에게 소속된 재산이다. 그들에게 정절이나 수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여자 노비에게 중요한 것이 한 남자의 아내라는 지위보다 주인의 소유라는 지위이기 때문이다. 『악녀의 재구성』은 이러한 수급비가 우하형이라는 남자를 위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 그가 죽자마자 자결하는 궁극적 이유를 자유 의지로 실천한 사랑에서 찾는다. 양반의 소유물인 주체에 사랑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그녀를 주체적 존재로 서게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혼은 네 번이나 했지만 남편들은 그네에서 떨어져 죽고, 피질에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서 죽었다. 텐동어미는 자신에게 결코 허락되지 않는 ‘남편’의 부재를 부재가 아닌 것으로 변형함으로써 결핍된 과부에서 벗어난다. 남편이 떨어져 죽은 나무에 나타난 ‘난데 없는 두견새’를 남편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는 것이다. 결핍의 불안은 있으면 잃을까, 없으면

없기에 발생한다. 텨동어미는 있고 없음의 대결에서 탈출함으로써 주체로 섰다고 할 수 있다. 내 복에 사는, 버림받은 막내딸은 어떠한가. 상처를 씻어내고 너그러움을 갖출 수 있기까지, 자신에 내재한 순연한 복력, 그 생명의 힘을 따라가기 위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은 필사적 몸부림이었다(244쪽).

결국 여성들이 사랑을 소유하고 대결에서 탈출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실행하는 것은 ‘죽음’과 ‘초탈’, ‘필사적 몸부림’이다. 주체가 되는 방법이 ‘죽음’, ‘초탈’, ‘필사의 노력’뿐이므로 결국 여성은 ‘신화’라는 기호로 남는다. 그 의미작용의 산물이 별신굿의 치술신모가 된 박재상의 아내, 살던 터를 떠나 제주 송씨 집안의 조상신이 된 광청아기, 사대부 여인들에게 생물로 숭상된 이여순, 신립을 죽이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 원귀,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랑도 드러낼 수 없는 기녀 분영이다. 세상은 신성이 되거나 혼령이 되거나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서 여성들이 주체로 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에 그녀들은 신화로 변형된다.

『악녀의 재구성』은 신화화된 ‘여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신화화한다. 앞선 신화가 계몽적이고 이념적이면서 은폐적이라면, 새로운 신화는 신성하고 현실적이면서 폭로적이다. 앞선 신화가 사건을 역사로 만들고자 한다면, 후자의 신화는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고자 한다. 남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는 가상세계이며 현실세계를 유희하는 도구이지만, 여성의 관점에서 이야기는 가상세계이면서도 현실과 조우하면서 현실세계를 연장하는 우주의 일부이다. 『악녀의 재구성』은 사실과 허구, 역사와 설화, 사건과 이야기를 뒤섞어 놓는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여성은 허구적인 이야기로 살아나고, 이야기 속의 여성은 공감과 동일시으로써 현실이 된다. 여성이라는 기호가 이야기로 의미작용하는 것이다.